



아주 미세한 변화지만, 1년만에 처음이다

1. 3월 들어 눈에 띄게 줄어든 거래

- 3월 KOSPI 일 평균 거래대금은 15.4조원
- 3/15일 KOSPI 거래대금(12.6조원)은 작년 11/19일 이후 최저치
- 3월 시총대비 거래대금 0.74%. 작년 3월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
- 3월 KOSDAQ 거래대금은 평균 11.4조원. 시총대비로는 작년 3월 이후 최저

2. 개인거래 비중, 1년만에 최저치

- 개인은 작년 1월 이후 KOSPI 80.2조원, KOSDAQ 21.2조원 순매수
- KOSPI 개인 거래비중은 11개월 연속 64%를 상회
- 3월 들어 개인 거래비중 59.8%로 하락. 개인의 매매 둔화 확인
- 증가세가 지속되던 고객예탁금도 1월 이후 추가로 늘어나지 않는 모습

3. 하락을 몰랐던 지난 1년

- 3월 KOSPI 수익률은 +1.8%지만, 월중 저점은 월초대비 -2.77%
- 작년 4월 이후 월간 저점이 가장 낮은 곳에서 형성됨
- 지난 5월 이후 214거래일 중 KOSPI 지수가 60일선을 하회한 것은 14일
- 그 중 이틀이 3/9일, 10일. 60일선 하회는 작년 11/4일 이후 처음
- 4/1일 CFD과세, 5/3일 공매도재개는 수급 환경의 변화를 예고

1. 3월 들어 눈에 띄게 줄어든 증시 거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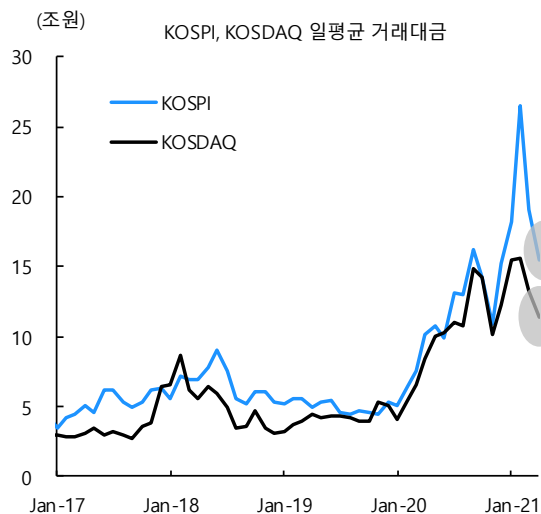
3/15일, 16일, KOSPI 거래대금은 이를 연속 12조원대에 머물렀다. 이는 11월 26~27일 이후 처음이다. 그리고 3/15일 거래대금은(12.6조원)은 11/19일 이후 최저치였다.

3월 들어 KOSPI 일평균 거래대금은 15.4조원 수준으로 1월(26.5조원), 2월(19.1조원)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졌다. 거래대금이 감소한 가운데 KOSPI 지수의 흐름도 1~2월에 비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.

3월 시총대비 거래대금은 0.74%로 증시 거래가 활발해진 작년 3월 이후 두 번째로 낮다. 15조원이라는 거래대금이 작은 숫자는 아니나, 증시 상승으로 시가총액이 높아졌기 때문에, 3월 증시 거래는 지난 13개월과 비교했을 때,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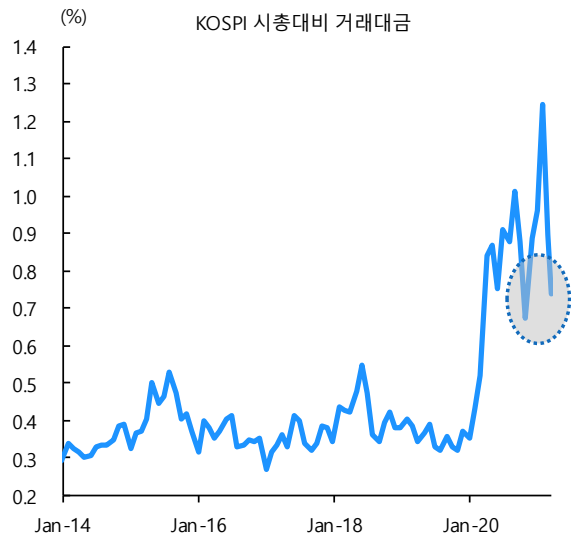
한편 3월 KOSDAQ 일평균 거래대금은 11.4조원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. 이 역시 작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, 시총 대비로 보면 작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.

[차트1] 국내증시 일 평균 거래대금,
3월 들어 눈에 띄게 낮아진 모습



자료: Myresearch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[차트2] KOSPI 시총대비 거래대금 0.74%
작년 3월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



자료: Myresearch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2. 개인 거래비중도 낮아졌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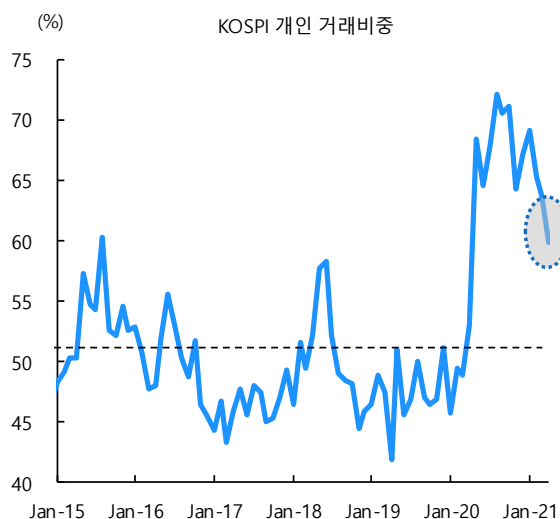
지난 1년간 증시에서 가장 눈에 띈 수급 주체는 개인이었다. 개인은 2020년 KOSPI에서만 47.5조원의 순매수를 기록했고, 21년에도 2개월 반 동안 32.7조원을 순매수 하는 등 매수주체로 활약 중이다. 같은 기간 KOSDAQ에서는 15개월 연속 순매수 중이며 누적 순매수 금액은 21.2조원이다.

개인은 대규모 순매수를 펼침과 동시에 거래 비중도 크게 늘었다. 작년 4월 이후 올 2월까지 개인 거래비중은 11개월 연속 64%를 상회했고, 7~9월에는 3개월 연속 70%를 상회하기도 했다.

3월 들어 개인 거래비중은 59.8%로 낮아져 있다. 11거래일이 남아있는 만큼 수치가 달라질 여지는 있으나, 작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가 기록 될 것으로 보인다. 그 동안, 개인이 수급을 주도해 왔다는 점에서 개인의 거래 둔화는 장의 성격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.

증가세가 지속되던 고객예탁금 추이도 1월 고점 이후 달라진 모습이다.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 이후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.

[차트3] KOSPI 개인 거래비중,
작년 4월 이후 처음으로 60% 하회



자료: Myresearch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[차트4] 증가세가 지속되던 고객예탁금 추이
연초 이후 추가로 늘어나지 않는 모습



자료: Myresearch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3. 하락을 몰랐던 지난 1년

작년 3월 19일 KOSPI 지수는 저점을 기록했고,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했다. 4월 이후 KOSPI 지수가 월간단위 (-)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작년 10월이 유일했다. 20년 4월, 11월, 12월에는 두 자리 수 상승률이 기록되기도 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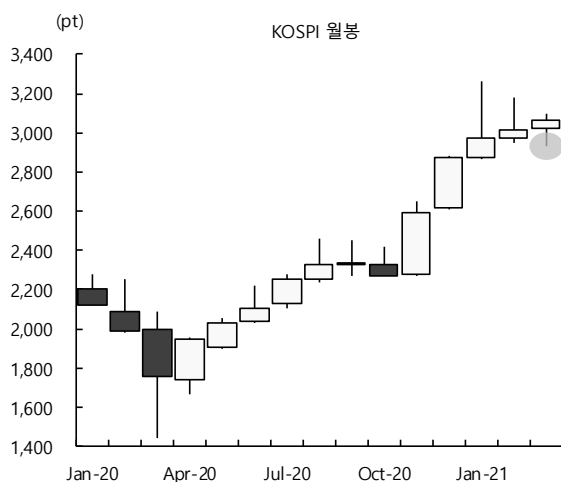
3월 KOSPI 지수는 월초 대비 +1.8%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지만, 월중 저점은 월초 대비 -2.77%로 나타나고 있다. 참고로 월초대비 -2.77%의 하락이 기록된 것은 지난 4월 이후 처음이다. 유일하게 지수가 월간단위 하락했던 지난 10월에도 월간 저점은 월초대비 -2.62% 였다.

작년 5월 초, KOSPI 지수는 60일선을 회복했다. 그 이후 KOSPI 지수가 60일선 아래로 내려온 것은 214거래일 중 14일에 불과하다. 그 중 이틀이 지난 3/9일과 10일인데, KOSPI 지수가 60일선을 하회한 것은 11월 4일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.

그 동안 상승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, 이런 미세한 변화도 의미가 없지는 않다. 거래대금의 감소, 거래비중의 변화 속 4/1일로 예정된 CFD의 과세, 5/3일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가 수급 환경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.

[차트5] 3월 월중 저점, 월초 대비 -2.77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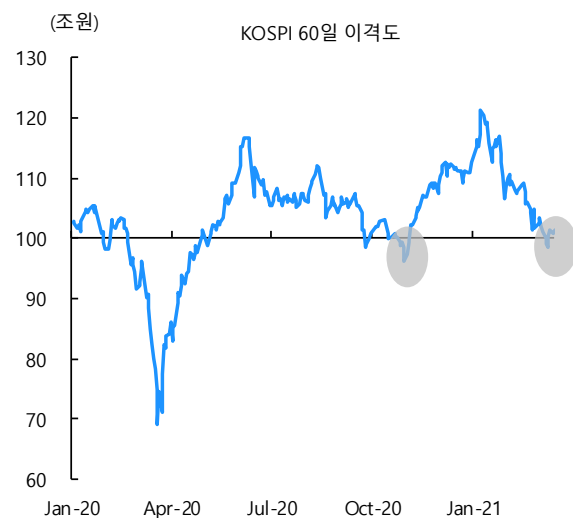
그 동안 월초 대비 -2.77%의 하락 조차 없었다



자료: Myresearch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[차트6] KOSPI 60일 이격도가 100 이하로 하락한 것은

작년 11월 이후 처음



자료: Myresearch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